



## 예거 르쿨트르, 뉴욕에서 “REVERSO STORIES” 전시회 북미 공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 중 하나인 리베르소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특별한  
전시회

2023년 11월 1일, 뉴욕 - 스위스 워치메이킹 메종인 예거 르쿨트르는 “Reverso Stories” 전시회를 북미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의 아이언 23(IRON 23)에서 개최된 매혹적인 쇼케이스는 1931년에 출시된 후 90년 이상 놀라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징적인 리베르소 시계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 메종의 글로벌 앰버서더와 함께한 오프닝 이벤트

처음으로 북미에서 선보이는 메종의 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예거 르쿨트르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 안야 테일러 조이(Anya Taylor-Joy),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Nicolas Hoult)가 오프닝 프라이빗 이벤트에 참석하였습니다.

### 순수한 독창성에 바치는 헌사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을 통하여 메종과 특별한 협업을 이룬 두명의 인재가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국제 제빵 및 페이스트리 셰프 연합(UBIC)가 선정한 ‘올해의 페이스트리 셰프(Pastry Chef of the Year)’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한 니나 메타예(Nina Metayer)와 아티스트 강이연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 장인정신과 우아함을 기리는 행사

예거 르쿨트르의 CEO인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는 성대한 행사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1931년에 탄생한 리베르소의 풍부한 역사를 기념하는 Reverso Stories 전시회를 뉴욕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워치메이킹에 장인 정신만을 기리는 전시가 아닌 예술과 혁신,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의 융합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 시간과 디자인을 통한 여정

디자인과 위치메이킹을 둘러싼 문화적 담론을 풍부하게 하고자 예거 르쿨트르가 기획한 “Reverso Stories” 전시회는 메종의 지난 90 년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관람객들은 다음 네 가지 흥미로운 테마를 통해 역사적인 여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스토리’는 소중히 보관된 아카이브 자료와 메종의 역사적인 시계를 통해 리베르소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타일 & 디자인의 스토리’에서는 리베르소의 미학적 기원인 아르데코와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까지 리베르소의 변천사를 살펴봅니다. 한편 ‘혁신의 스토리’에서는 회전식 케이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하이 컴플리케이션의 도입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발명을 향한 예거 르쿨트르의 끊임없는 도전이 리베르소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정신의 스토리’에서는 리베르소 케이스를 작은 예술 작품으로 변신시키는 매뉴팩처의 에나멜 장인, 잼 세팅 장인, 인그레이빙 장인, 기요세 장인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 다감각적 경험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자연 속의 황금 비율과 인간이 만든 디자인 사이의 미학적 연관성을 탐구하는 한국인 아티스트 강이연의 멀티미디어 조각 설치 작품인 ‘오리진(Origin)’입니다. 또한 관람객들은 아르데코풍으로 장식된 1931 카페에서 오직 이 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페이스트리 메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리와 예술 모두를 겸비한 프로젝트는 예거 르쿨트르의 Made of Makers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히 의뢰받은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위치메이킹과 다른 예술 형식 간의 소통을 확장하는 일련의 예술적 파트너십을 이룹니다.

## 체험형 위치메이킹 워크숍

위치메이킹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Reverso Stories’는 아틀리에 앙투안에서 체험형 교육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 위치, 개장 시간 및 입장료

'Reverso Stories'는 11 월 22 일까지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되며, 풍부한 문화적 맥락에서 디자인과 장인 정신, 워치메이킹의 영역에 몰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위치:** 5 번가와 6 번가 사이, 플랫아이언 지구(Flatiron District, 29 West 23rd Street) 중심부에 있는 아이언 23

**개장 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 시- 오후 7 시,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 시- 오후 7 시, 일요일: 오전 11 시- 오후 6 시. 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입장. 가이드와 함께하는 방문은 *Jaeger-LeCoultre - Theme - THE REVERSO STORIES EXHIBITION*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 워크숍:** 아틀리에 앙투안의 디스커버리 워크숍 세션은 예약을 통해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

##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 Made of Makers 소개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워치메이킹 이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장인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시계 제작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교류를 확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그랑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 원칙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며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열정적이고 숙련된 아티스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되는 새로운 작품들은 예거 르쿨트르가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선정된 주제를 확대함으로써,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 공예, 디자인에 대한 더욱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

## 강이연 작가 소개



오늘날 미술계에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재능 있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중 한 명인 강이연은 동영상과 소리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몰입형 시청각 설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UCLA 에서 학업을 이어갔으며 런던 왕립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예술 학회(FRSA) 회원이기도 한 강이연은 본인의 예술 활동과 함께 현재 KAIST(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험 디자인 연구실 디렉터로서 다양한 연구와 실습을 통해 예술과 디자인, 기술, 과학의 진정한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강이연의 작품은 유럽, 아시아, 미국에서 전시되었으며, 그녀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Venice Architecture Biennale), 선전 뉴미디어 아트 페스티벌(Shenzhen New Media Art Festival) 등 국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2015-16년에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런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후 그녀의 컬렉션을 특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딥 서페이스(Deep Surface) 전시로 전시 디자인 부문에서 레드 닷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글로벌 현대 미술 프로젝트인 커넥트, BTS(Connect, BTS)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강이연은 서울 PKM 갤러리에서 개인전 '안트로포즈(Anthropause)'를 선보였고, 2022년에는 파리를 시작으로 홍콩, 모스크바, 베이징, 뉴욕, 워싱턴을 순회하는 전시회인 '입체적 상상(Cubically Imagined)'에 참여했습니다.

학술 연구자로서 디지털 프로젝션 영상 작품의 새로운 특성을 연구한 강이연의 저서가 MIT Press 와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녀는 2022년 영국문화원에서 수여하는 문화 및 창의성 상(British Council Alumni Award for Culture and Creativity)를 수상했으며 영국 정부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위원회의 공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강이연은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정기적으로 초청되어 예술 및 디자인, 기술 분야의 기관과 기업에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

### **'Reverso Stories' 전시회의 아틀리에 앙투안 소개**

아틀리에 앙투안은 1833년, 이곳 르 상티에(Le Sentier)에 메종의 첫 번째 워크숍을 지은 설립자 앙투안 르쿨트르(Antoine LeCoultre)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의 천재적이고 열정적인 정신과 창의적인 기술에 경의를 표하는 아틀리에 앙투안은 시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파인 워치메이킹 세계에 몰입하여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 'Reverso Stories' 전시회에서 마련된 아틀리에 앙투안의 리베르소 디스커버리 워크숍 세션은 예약을 통해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숍의 참가자들은 아르데코 라인부터 독창적인 회전 메커니즘에 이르는



리베르소 케이스의 기원을 탐구한 후, 예술적 표현을 위한 캔버스이자 파인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의 산물로서 수십 년간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리베르소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참가자들은 리베르소 아카이브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모델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매뉴팩처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50 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하여 리베르소 케이스를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뛰어난 솜씨와 인내심을 시험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jaeger-lecoultre.com](http://jaeger-lecoultre.com)

**메모:** 고해상도 이미지를 원하시면 예거 르쿨트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메종의 미디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